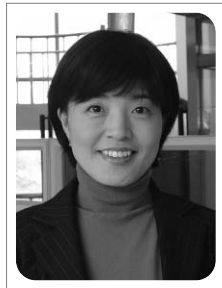


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뜨거운 구름 잡기가 될지도 모를 나의 꿈



이경희*

출근 길 산과 들에 봄빛이 가득하다. 계절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변화는 짧지 않은 출근시간의 지루함을 덜어주는 친구처럼 다정하기만하다.

이렇듯 자연의 변화는 일년에 4번을 넘나들며 반복되지만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은 그 속도도 방향도 예측을 넘어서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같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불과 몇 년 전까

지만 해도 기관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해결했던 도서관 전반의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의 수준 높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서관의 경우 각종 설문조사, 희망도서신청, '고객의소리함'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도서관운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어떤 도서관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지역주민의 희망을 반영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호에서 각계 각층의 도서관을 사랑하는 분들이 꿈꾸는 도서관을 그려보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의 내적 반성과 노력이 외부의 문제 제기나 꿈꾸는 도서관 수준에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것은 아닌 가하는 생각을 들었다.

사실 도서 확충을 위한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식정보 제공의 역할을 충실

* 충북금영도서관 사서, 2277orange@hanmail.net

히 수행하고, 걸어서 10분 거리마다 도서관이 세워져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찾을 수 있으며 외국처럼 아름다운 도서관을 세우는 일, 효과적인 참고봉사를 위한 적절한 도서관 인력 확보 등 도서관에 산재한 많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도서관 사서라는 사람이 뜬 구름 잡기가 될지도 모를 꿈들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죄송할 밖에…….

나는 도서관이 늘 책 읽는 사람으로 넘쳐나고 그들의 머리에 쌓이는 지식과 가슴에 스며드는 감성과 지혜의 향기가 가득한 곳하기를 꿈꾼다.

평일 오전에는 아직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유모차를 타거나 엄마의 손을 잡고 도서관에 와서 아름다운 그림책을 읽고, 오후가 되면 하교한 아이들이 학원 차에 몸을 싣는 대신 도서관에 와서, 미지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나 위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자 또 한 편의 동화에 웃고 웃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졌으면 좋겠다. 주말에는 가족 모두 즐거운 소풍을 오듯 도서관에 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을 읽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평생의 독서습관을 좌우하는 유아기부터 도서관을 통해 폭넓은 독서세계를 만들어가고 일생을 두고 배움을 계속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시대를 살면서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찾아가기 위해 늘 친구처럼 다정하고 편안한 존재, 그게 바로 도서관이길 소망한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과 질 높은 독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를 매력처럼 끌어당기고, 다양한 소장 자료와 장서 수준의 향상을 통해 충실한 지식·정보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이용자에게도 최고의 만족을 선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

또한 나는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는 곳,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찾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길 꿈꾼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기 개발 및 학습의 동반자로서 또한 열린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 장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도서관이야말로 개인의 꿈과 희망을 세우고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가슴 속에 접어두었던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와 학습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이루고자 애쓰는 많은 이들의 희망이 언제나 도서관에 그득하다. 또 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전한 문화생활만이 아닌, 뒤늦게 자신의 재능을 깨달아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떠올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로 삼은 열정적인 배움의 향기가 도서관을 채우고 있다. 바로 국민 개개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가는 곳이 도서관인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수준은 한 나라의 문화지표가 된다고 한다. 충분한 장서 구입조차 불가능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꿈도 꿀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감안할 때 우리의 문화지표는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멀리 꿈을 두고 추구해야 할 방향만 소리 높여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닐까. 열악한 도서관 환경 속에서도 늘 책을 읽고 이를 통해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는 많은 이용자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언젠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도서관이 창조될 가능성이며 도서관의 아름다운 비전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로서 내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가능성이며 꿈꾸어야 할 비전과 다르지 않다. 